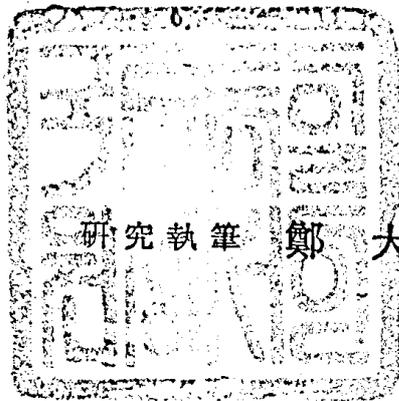


이 冊字는 政策企劃室 '78年度 基本事業計劃에 依據 當面政策研究의
一環으로 作成한 研究報告書임.

1980年代의 韓·美 安保体制의 向方

— 平時 協力關係 展望과 非常時 對美 期待度 豫測 —

1978. 12.



研究執筆 鄭大圭 (國土統一院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要 約

本 研究는 美国의 東北亞 政策變化의 조짐과 함께 닥쳐올 1980年代에 있어서 한·미간의 平時 協力關係 展望과 萬一의 非常事態 發生時 美国의 對韓軍事的 支援形態를 予測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pp 9 ~ 13)

研究接近方法은 最初의 計劃은 델파이 (Delphi) 라는 一種의 통계적 技法을 使用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本 研究가 1980年代라는 未來狀況을 予測하는 作業이기 때문에 그 予測의 確율성, 研究結果의 客觀性 그리고 研究方法의 科學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相異한 여러 專門的 意見中 共通의 見解를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最初計劃은 現在의 諸般條件을 (人力不足, 機動力不足, 應答者 集團의 責任있는 應答期待 困難등) 사전에 充分히 고려치 못한 結果로 수정이 불가피 했다.

수정된 接近方法은 問題의 性格과 實踐的 要請을 감안하여 학술적인 모형설정이나 理論的 概念化를 회피하고 政策形成과정의 환류 작용 (Feed-back) 으로서 政策환경에 상응하는 參考資料를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知的경험에 立脚한 直觀的 方法 (Intuition) 을 취하였다.

研究範圍는 80年代 기한을 초반경으로 잡았으며, 非常事態發生

時 對美期待度 예측에서는 具體的事項(수송, 병참, 장비지선등)은 생략하고 對應패턴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pp. 13 ~ 17)

研究內容은 未來豫測의 基準으로서 現在의 韓美協力体制의 공간이 되는 事項을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分類整理하여 展望의 基礎資料로 제시하였다. (pp. 18 ~ 37)

- (1)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의 主要內容들
- (2) 駐韓美軍의 主要 構成單位들
- (3) 駐韓美軍의 主要機能
- (4) 現行 韓國軍 作戰指揮權의 性格
- (5) 韓國軍 및 駐韓美軍의 作戰指揮體制
- (6) 韓國軍 現代化 計劃과 美國의 對韓軍事援助 實態

本 研究의 核心이 되고 있는 '80年代의' 韓美間 平時 協力關係 展望과 非常事態發生時 美國의 軍事的 對應豫測'의 內容을 보면, 첫째, 平時 協力關係展望은 그 論理를 먼저 몇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에 따라서 展開하였는바, 그 가설은

(1) 美國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위협의 인식은 과거 10年동안에 顯著히 變化하였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中共과는 戰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는 認識이다. 이와같은 인식은 적어도 今後 10年동안은 繼續될 것이다. 中·소關係가 基本的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10年以上 長期間에 걸쳐 美·中共은 소련의 위협에 對항하는 共通의 자세를 취할 可能性이 크다. (p. 38)

(2) 美國은 長期的으로는 아시아 大陸周邊에 對한 地上軍 개입을

撤収시키고 日本,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를 이은 일련의 도서의 연쇄를 高度의 機動力을 가진 海, 空軍力으로 防衛한다고 하는 "島嶼防衛戰略" (Island Chain Strategy)을 취할 것이고 短期的으로는 (적어도 80年代初半까지는) 일정수준의 기동타격부대를 維持하여 소련의 소규모 軍事膨脹모험에 대처하려고 할 것이다. (pp. 38 ~ 39)

(3) 美, 中共關係는 소련의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는 共通의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強力한 軍事協力 내지 同盟體를 形成시킬 可能性은 거의 없다. (pp. 39 ~ 40)

(4) 美國은 美地上軍 撤収를 계기로해서 韓半島의 安全保障을 南北韓의 軍事的均衡에만 依存하지 않고 南北韓間의 交渉에 의한 해결로 一步前進시키기 위한 外交的 努力을 추진할 것임. 그러나 地上軍의 퇴조시기와 方法에 관해서 韓國, 日本과 緊密한 協議를 함으로서 南北韓간의 힘의 均衡이 현저히 不安定하게 되는 事態를 豫防하려고 할것이다. (p. 40)

(5) 中·소는 공히 北韓의 武力統一에 反對할 것이나 소련은 北韓의 親中化를 막기위해서 相當量의 軍援과 經援을 北韓에게 줄 것이나 美國의 한반도 平和定着을 위한 外交的 努力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中共은 北韓과의 협조강화는 勿論 北韓에게 " 韓國內部革命 "을 통한 비정규전적 統一努力을 크게 支援할 것이다. (p. 41)

가설에 立脚한 平時 協力關係를 懸案問題別로 展望하면,

(1) 韓美防衛條約上の 補完問題

同條約이 비록 美國的인 軍事戰略方向에 따라 그 性格의 強弱이 決定되고 또한 美國的 憲法節次에 따라 遂行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韓·美간의 安利益의 共通領域이 금후 相當기간에도 繼續存在할 것이 分明하고 條約의 改定強化가 韓·美간에 새로운 마찰을 야기시킬 可能性이 크기때문에 同條約은 現在대로 維持될 것이다. (pp. 42-43)

(2) 作戰指揮權

美國은 駐韓美地上戰鬪兵力이 完全 撤收하더라도 (1981 - 82) 韓·美雙方의 각기 이해가 합쳐되는 이유로 인해서 적어도 80年代 초반까지는 계속 美軍이 장악할 것이다. 部分的인 韓國軍 參與도 許容될 것이다. (pp. 43~44)

(3) 美國의 對韓 軍事支援 (p 44)

○ 80年代 초반까지는 일부 美軍兵力(해, 공군 포함)이 잔류할 것이나 종반경에는 완전철수를 단행할 可能性이 크다.

○ 援助의 形態에 있어서 대한 무상원조는 駐韓美2사단의 장비이양을 제외하고는 完全 中斷될 것이며 對外軍事販賣法 (FMS) 에 의한 신용공여도 점차 줄어들고 現金販賣가 주종이 될 것이다.

둘째, 非常事態 發生時 對美 기대도는 그 측정기준으로서 과거에 美國이 友好國의 非常事態發生時 취한 軍事的 対応經驗事例를 分析하여 6가지의 共通要因을 추출하여 이 要因에 80年代 狀況을

대입시켜서 측정의 효과와 正確性을 위해 6.25 動亂時를 比較檢討하였다. 이를 간단히 도표를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p. 45-52)

美国의 対応 軍事패턴

要因 / 戦争区分	6.25 動亂	80 年代 非常事態
1. 國際輿論	0	X
2. 國內輿論	0	X
3. 戰略的 価値	0	△
4. 戰略的 配置	0	△
5. 全面戰 可能性	0	0
6. 政治的 배려	0	△
対応 패턴	全面武力行패턴	支援패턴

- (凡例) X : 美国의 軍事的 対応을 抑制한 要因
 △ : " " "에 中立的인 要因
 0 : " " "을 可能케 한 要因

* 対応패턴의 具体的 内容說明 (pp. 42 - 42)



目 次

요 약	1
1. 서 론	9
가. 問題認識 (의의 및 목적)	9
나. 접근 方法	13
2. 韓美安保体制의 現況	18
가. 美國의 對韓防衛公約 主要內容	18
나. 駐韓美軍의 主要構成 單位	19
다. 駐韓美軍의 主要機能	21
라. 現行 韓國軍 作戰指揮權의 性格	23
마. 韓國軍 및 駐韓美軍의 作戰指揮 体制	26
바. 韓國軍 現代化 計劃과 美國의 對韓 軍事援助	31
3. 1980 年代 韓美相互防衛協力關係展望	38
가. 몇 가지 가설	38
나. 韓美協力關係	42
4. 非常事變 發生時 對美期待度 측정	45
가. 전제사항	45
나. 측정 기준	45
다. 對美期待度 측정	48



1. 序 論

가. 問題認識 (意義 및 目的)

(1) 1978年 現在 周邇國際情勢, 특히 東北亞에서의 情勢는 急變하고 있다. ①美, 中共關係 改善 ②日本, 中共平和條約 締結 ③소聯의 東南亞 進出努力등으로 東北亞에는 美國, 日本, 中共이 소련을 상대로 한 3 : 1의 對蘇 封鎖網을 形成하는 (이른바 소진의 合縱책을 방불) 새로운 變化와 緊張이 돌고 있다.

이러한 變化가 1980년에 가면 새로운 질서로 자리잡혀 갈 可能性이 많으나 이 새 질서는 한반도에는 교차압력을 주는 結果가 되어 우리의 適應努力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可能性이 많다.

(2) 美國은 世界의 多數국가 또는 國家群과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其他 많은 分野에서 公約을 交換하고 있다.

특히 軍事的으로는 共產主義의 侵略에 저항한다는 基本的인 態度에서 美國의 軍事行動을 示唆하는 公約을 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로는 公約의 깊이와 이해의 깊이는 地域과 事境에 따라서 여러가치의 차이가 있다. 상호방위조약의 용어사용도 틀리고 條約이 시사하고 있는 특정 적의 행동에 대한 対応方法도 다르다. 이것은 條約의 適用範圍로 되어있는 地域과 동 地域에서 어느정도까지 美國의 安全이 위협받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더욱이 1948年 美國上院에서 採択된 소위 '반펜버그 결의'에

나타나 있는 것과같이 美國의 公約履行은 " 同盟國의 繼續的이고 效果的인 自助 및 相互援助를 기초로 하고 同時에 美國의 安全保障에 影響이 있는 地域的 其他 集團의 措置에 美國이 憲法上 절차에 따라 參加할 것 " 이 중요한 전제로 되어있다.

이와같이 단순히 集團安全保障條約에 대해서도

- 條約 그 自体措置內容의 微妙한 相違
- 美國 安全保障에 대한 위협정도
- 友好國의 繼續的이고 效果的인 自助努力의 정도

의 要素에 의해 美國의 軍事的 対応에는 커다란 幅이 있었다는 點은 80年代 韓美安保關係豫測에 중요한 要素가 아닐수 없다.

(3) 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거 美軍개입의 發動 形式面에서 보면 NATO와 같은 자동적 개입방식이 아니라 한정적 개입방식의 形態를 취하고 있다.

(S. J Deitchman 은 Limited War and American Defense Policy 1966. 에서 美國이 맺고 있는 防衛條約에 있어서 美軍개입의 發動形式을 ①條約加盟國의 일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美國이 自動的으로 軍事개입할 것을 의무화한 自動的 개입방식 ②條約加盟國에 대한 공격이 美國의 安全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同時에 條約加盟國의 援助要請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美國의 憲法上의 節次를 거쳐 軍事介入을 하는 한정적 介入方式 ③共產主義 侵略에 對항하기 위하여 同盟國의 同意를 얻어 一方的으로 軍事介入을 하는

一方的 宣言 介入方式의 3 가지로 分類하고 있음)

同 條約 3 條에 "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대한 太平洋 地域에서의 武力공격에……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憲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宣言한다. " 라고 規定되어 있다. 이에 反해서 北韓은 소聯과의 友好 및 互相援助에 관한 條約의 第1 條에서 " 일방이 어떤 國家 또는 國家聯合으로 부터의 軍事的 공격을 받아 戰爭狀態에 들어갔을 경우 타 일방은 즉각 그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軍事的 또는 그 밖의 다른 援助를 提供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軍事的 対応이 強力하다. 이런 現狀은 「朝, 中防衛 條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南北韓 雙方的 集團安保體制의 條約內容上으로 보면 韓國이 相當히 不利한 位置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韓國이 앞으로 改善시켜야 할 韓, 美安保上의 重要한 懸案問題임에 틀림없다.

(4) 또한 美國의 軍事的 介入은 大體로 위협의 種類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美國은 條約加盟國의 外部로부터의 위협 즉, 美國 자신 安全에 直接 위협을 주는 同盟國 또는 友好國에 對한 外部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対応하여 왔다. 그러나 條約可盟國 國內의 政權 전복활동에 의한 위협과 같은 内部 위협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그 위협이 明確히 外部에 근원을 둔 경우의 侵略이라고 성격되어 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軍事的 対応은 완만과 급속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 6.25 事變時 美國의 対応은 그것이 共產勢力의 南侵(中, 소의 共產圈에 근원을 둔 侵略)이 美國의 태평양 방어와 日本防禦에 絶對적으로 위험하다고 判斷되었기 때문에 美軍介入은 強力하였다.

그러나 向後 80 年代에 만일 韓國戰이 再發한다면 (그것이 전면전 이든 국지전이든간에) 美國은 지난 6.25 事變 때와 같이 강력한 軍事的 対応을 취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5) 美國의 東北亞 政策變化의 조짐과 함께 美國의 對韓 政策도 과거 60 年代의 그것과 다른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韓國의 地形的條件이 美國의 태평양 防禦戰略上에 있어서 가치가 점차 褪色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美國은 東北亞 現狀維持와 安定追求를 위한 한반도 政策으로서 南北韓이 대결구조속에서 相互 軍事力均衡에 의한 安定維持라는 과거의 政策에서 南北韓 화해구조속에서의 安定維持라는 새로운 政策으로 發展될 可能性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것은 美國이 軍事적으로는 여전히 韓國을 支援한다고 할지라도 政治적으로는 南北韓 등거리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嚴密히 말해서 韓國安保維持라는 觀點에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것은 만일 한반도 非常事態 發生時 美國의 強力한 軍事介入을 흐리게 할 소지를 다분히 갖게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점에서 우리는 向後 80 年代의 韓美安保協力體制를 새로운 方向에서 모색해 나가야 할 必要性을 갖게 된다.

(6) 現在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이 여전히 美軍에게 있다. 비록 78.11.7부로 韓美聯合司令部가 신설되고 作戰指揮權이 종래의 수직적관계에서 수평적관계로 變化된 것 같은 外部的 양상을 띄고 있지만 그러나 實際로는 美國의 統制下에 놓여있다. 이는 美國이 韓國軍의 단독 軍事作戰 不能을 위해 保有하고 있는 수단 이기는 하지만 한편 이는 韓國의 對美 軍事依存體制를 強化시키고 나아가 軍 現代化計劃의 차질과 주한 美地上軍 撤収연기의 必要性만 增加시키는 結果만 자초하게 된다. 따라서 駐韓 美地上軍 撤収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 진다면 80年代에는 作戰指揮權이 韓國軍에 이양될 것은 틀림없게 된다.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韓美간의 安保上的 協力關係 弱化可能性을 사전에 감소시킬 必要性도 역시 느끼게 된다.

나. 接近 方法

당초 本 研究課題 設定時에는 研究接近 方法을 델파이 (Delphi) 기법을 사용하고자 計劃하였다. 왜냐하면 本 研究가 1980年代라는 未來狀況을 豫測하는 作業이기 때문에 그 예측의 確율성 研究結果의 客觀性 그리고 研究方法의 科學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이한 여러 전문적 의견중 共通的 見解를 추출하는 一種의 통계적 처리기법으로서의 델파이 研究方法이 유용할 것으로 判斷되었고 이는 나아가 現在 當원의 核心研究事業의 하나로 進行되고 있는 統一戰略開發 人間模擬實驗 研究에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점차 그 기법운영의 기술을 터득할 가치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델파이 기법사용 계획은 現在の 諸般條件을 사전에 充分히 고려하지 못한 結果로 인해 중대한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本 研究는 델파이 기법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수집, 整理한 後에 이에 근거하여 本 研究者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作成되었다. 그러나 本 研究結果는 차후 本 課題를 델파이기법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 破綻시나리오가 될수 있는 중대한 가치를 가질 것은 틀림없다.

차기 研究의 參考를 위해서 당초 計劃에서 구상하였던 델파이 方法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1) 델파이 方法이란 :

不明確한 未來의 狀況을 豫測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의 편견과 오류를 最大한 제거하기 위하여, 豫測하고자 하는 事項에 관하여 동질적인 專門家들의 合議를 確保함으로서 豫測의 客觀性을 높이고자 하는 科學的 研究方法이다.

(2)델파이 集團構成 :

(가) 使用者 集團 (User body or spomsoring body) : 財政支援 担当

(나) 設計集團 (design team) : 델파이의 설계 및 설문지 작성

(다) 운영集團 (monitor team) : 델파이를 直接 遂行하고 應

答内容を 綜合

(라) 応答者 集團 (respondent group) : 설문지에 応答하는 集團
당초 計劃上에서는 사용자집단, 설계 및 운영집단을 당원이 담
당하고 応答集團은 당원에서 5名, 外部關係專門家 15名 포함 20여
명으로 構成하고자 하였음.

(3) 델파이 進行요령

(가) 設計/運營集團이 마련한 설문지를 応答者에게 配布한다.
이 경우 설문이 아니라 설계집단이 잇슈에 따르는 최초의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 応答者の 찬성, 反對 또는 부가적인 의견을 要請
함으로써 応答者の 応答를 수월하게 유도할 수도 있다.

(나) 設計/運營集團이 專門家들의 의견을 비공개와 익명으로 제
시받고 이를 綜合한다.

(다) 綜合된 內容과 함께 同一한 설문지를 다시 배포하기를 몇
번 반복하면서 특정상황에 대한 応答者 集團의 合意를 確保한다.
이 경우 設計集團에서는 회수받은 의견을 綜合할 때에 소수의견이
라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4) 델파이의 장점

델파이는 설문지를 배포한 後 一定한 時間이 경과한 후에
專門家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받기 때문에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
제시에 충분한 研究時間과 參考資料를 活用할 수 있음은 勿論 비
공개로 인하여 타인의 影響力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미

나식의 위원회 토의 方法보다도 유용하다.

그리고 一般大衆을 대상으로 하는 与論調査方法보다 研究内容이 보다 專門的이고 심층적인 分析이 될수 있다.

(5) 당초 計劃의 수정이유

(가) 人力不足

○ 設計 및 運營集團 構成에 必要한 最小限의 人力確保가 困難하였음. (本 研究者 1인밖에 없었음)

(나) 소요예산 부족

○ 應答者 集團의 사례금 준비 不足

(다) 기동력 不足

○ 運營集團과 應答者 集團간의 빈번한 情報 및 業務연락을 위한 기동성 確保가 困難

(라) 應答者集團의 責任있는 應答기대 困難

○ 現在까지 韓國에서 델파이 研究방법 導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시도되었지만 한번도 成功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應答者가 積極的이고 責任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本 研究가 進行中에 가장 큰 障壁으로 부딪치고 計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임.

(長官님께서 이점 때문에 델파이 進行이 困難할 것이라는 가르침이 있었음)

이상에서 本 研究課題가 당초 計劃인 델파이 研究方法를 수정하

게된 과정을 서술하였으나 다음에는 수정된 本 研究의 論理展開方法을 살펴본다면,

(1) 問題의 性格과 實踐的 要請을 감안하여 학술적인 모형 설정이나 理論的 概念化를 회피하고 지적 경험 내지 政策形成課程의 환류작용 (Feedback) 으로서 政策환경에 상응하는 參考資料를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며,

(2) 정성적 豫測方法 (델파이 또는 세미나식의 위원회 토의법) 이나 정량적 豫測方法 (비교 개량법) 등을 피하고 지적경험에 立脚한 직관적 (Intuition) 方法을 취한다.

(3) 關聯狀況에 관한 해설, 실증, 반증적 說明을 省略하고 기정사실로서 인정될 수 있는 狀況의 內容을 要約하였다.

(4) 狀況과 認識의 問題에 있어서 國家政策의 설정에 必要한 狀況의 認識과 대중에 대한 이미지 形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國民에 대한 이미지 形成問題를 떠나서 客觀的 狀況의 認識에 유의하였다.

(5) 非常事態 발발시 對美期待度 分析에 있어서는 具體的 事項 (輸送, 병참, 裝備支援등) 에 대해서는 回避하였음.

(6) 本 研究에 있어서 時間上의 研究範圍는 80年代 초반으로 잡고있다. 時間範圍가 長期 일수로 豫測의 正確性은 더욱 멀어지게 되며 나아가 豫測의 基本 가정, 주어지는 條件변수 까지도 엉뚱해질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特別한 技術 및 確實한 資料의 整理가 선행된다고 할지라도 80年代 후반기 豫測이란 예언적 性格을 띠기 어렵다.

2. 韓·美 安保體制의 現況

가. 美國의 對韓 防衛公約 主要內容

1971 年의 駐韓 美 7 師團의 撤收로서 始作된 駐韓 美地上軍 撤收計劃의 本格的인 實踐에 따라 고조되고 있는 韓國安保 취약론 論議를 둘러싸고 美國은 韓國과 日本에 대하여 安保公約을 더욱 빈번히 하고 있다.

베트남 패망후 美 行政府가 發表한 公約上의 主要 발언을 보면

(1) 아시아의 安定, 특히 極東 아시아에 있어서의 均衡은 우리의 平和와 安全에 필수적이며, 그것은 우리의 積極的인 參與없이 維持될 수 없다.

(2) 日本은 美國에 있어서는 西歐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우리의 盟방이다.

(3) 美國은 아시아, 太平洋地域에 대한 자신의 條約상의 公約을 지킬 것이며 緊張과 對決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바람직한 方法들을 추구하여 한반도의 平和와 安全維持에 특히 유의할 것이다. 이것은 역시 日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된다.

(4) 美國은 繼續해서 中共과 外交關係 정상화를 모색할 것이며 同時에 아시아의 安定維持라는 戰略的 이해관점을 추구할 것이다.

(5) 向後 4 - 5 年에 걸친 駐韓 美地上軍의 撤收計劃은 韓國政府를 매우 유의하여 計劃될 것이며, 이는 역시 日本政府의 充分한 이해와 參與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駐韓 美戰術 空軍, 병참支援部隊, 情報要員들은 繼續하여 남게 될 것이다. (以上出處: 키신저 美國務長官의 1975. 6. 18, 뉴욕에서 日本人 協會에서 연설, 1975. 11. 24, 디트로이트 經濟人 클럽연설 및 1976. 7. 22, 시아틀의 로타리클럽에서의 연설, 1975 12. 7 포드大統領의 태평양 平和 doktrin 선언, 카터. 후쿠다의 1977. 3. 22 共同声明, 카터大統領의 1977. 3. 17 유엔總會 연설 1978. 12. 6 홀부루크 美國務省 동아시아. 태평양 問題担当 차관보가 뉴욕에서 極東아시아. 아메리카 위원회와 韓. 美 經濟委員會 초청연 회에서의 演說 等이며, 그 以外에도 상당히 많음)

나. 駐韓 美軍의 主要構成單位

(1) 構成部隊

(陸 軍)

- 第2 步兵師團
- 主要兵站支援 單位部隊 (第19 支援 旅團)
- 第38 大 空방어포병여단
(나이키 허큐리스 6 個포대와 호크 지대공미사일 12 개포대를 통제)
- 第4 미사일 司令部 (에네스트 . 존 및 서전트 전술지대 지 미사일 1개대대를 포함한 韓國 陸軍支援 장거리 포대)
- 司令部, 통신部隊들, 情報 및 통제 단

(空軍)

- 3個戰術 요격 비행중대를 포함한 2個의 비행단
- 情報 및 통신부대를 포함한 支援部隊와 戰術航空機의 補充기체 등의 可能性에 대비한 2個 空軍基地 維持를 위한 管理부대

(2) 駐韓美軍 兵力

(가) 1977年3月31日 現在

- 總兵力: 41,336名
- 陸軍: 33,507 "
- 空軍: 7,245 "
- 海軍: 253 " (司令部 參謀要員)
- 海兵隊: 331 " (司令部 參謀要員)

※ 以上出處: 美議會 豫算局 (Congressional Budget office), 美國 一般目的軍의 計劃: 아시아 관련 軍部隊 (Planning U.S. General Purpose Forces: Forces Related to Asia) 1977.6, pp52-53 (豫算審議用으로 作成)

(나) 1978年中 1個步兵隊 및 그 支援軍 3,400명 撤收

(다) 1979년에는 2個大隊 撤收

(라) 1981年 撤軍 完了後 잔여부대

- 情報通信 병참 兵力 7,000명
- 약간의 UNC 要員들
- 空軍兵力 9,000명 주둔

※ (나), (다), (라) 出處 : 홀부르크 美國務省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1978.12.6 뉴욕에서 韓美經濟委員會 招請연설문(朝鮮日報,
1978.12.7, 1면)

다. 駐韓美軍의 主要機能

(1) 戰術空軍 支援機能

駐韓 美戰術空軍은 北韓의 韓國侵略이라는, 우발적 事件發生時
에 韓國의 空軍방어 뿐만 아니라 北韓의 陸上機甲部隊의 공격을
効果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는 火력을 제공하는 機能을 담당하게
된다.

(2) 병참지원 機能

駐韓美軍의 兵站支援 機能은 韓國軍 現代化計劃(Force
Improvement Program)이 이루어져 國防部分에서 자기의존 구조
가 形成되리라고 豫測되는 1980年의 時間的 狀況에서도 여전히
중대한 機能이 될 것이다.

兵站支援에는 相当數의 美軍을 韓國에 繼續駐屯시키지 않으면 안된
다.

(出處 : U. S.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H. CAS) FY
1977. pp766, 785)

(3) 情報提供 機能

이 機能도 美軍에게는 勿論이지만 韓國軍에게도 경제태세 確立, 北韓의 南侵分析 그리고 戰術的 支援体制 確立에 重大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出處: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y 6, 1977, p.26)

(4) 地上에 기지를 둔 대공방어 機能

12개의 호크地對空 미사일 진지는 중요한 대공방어 機能을 하고있다.

(5) 北韓의 南侵抑止 및 南北韓의 우발적인 戰爭발발 可能性 抑 制機能

駐韓 美第2師團은 實際로 北韓의 南侵計劃의 무모성과 이러
한 무모성을 선동할 수 있는 중·소의 충돌질을 實際로 抑止시키
는 주요한 機能을 担当하고 있으며 이것은 極東亞 特히 韓國
의 政治的, 社會的 安定을 거의 擔保하고 있는 實情이다.

(6) 美國의 對韓 作戰指揮 및 統制權限의 繼續的 確保를 可能하 게 하는 機能

美軍의 繼續的인 韓國駐屯은 美軍은 勿論 韓國軍에 대한
作戰 및 指揮統制權을 美軍이 繼續 장악하게 함으로서 한반도의
安定을 美國이 願하는 方向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술레진저 美國防長官이 1975.8.29 과 9.1에 가진 記者會見에
서 同一한 見解表明, CBO. Opclt. p 54)

(7) 戰術核武器를 韓國에 備비함으로서 効果的인 戰爭抑止機能을 갖

고 있다.

라. 現行 韓國軍 作戰指揮權의 性格

(1) 現在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은 유엔軍 司令官이 關望하고 있다. 이 같은 現狀이 成立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1950年 7月 13日

- 이승만·백아더간의 소위 "大田協定"에 따라 UNC에게 위임 약속
- 곧이어 이승만大統領이 "現作戰 狀態가 繼續되는 동안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유엔軍 司令官인 백아더장군에게 이양한다"는 공한 발송

(나) 1953年 8月7日

- 韓美相互防衛條約이 加造인되면서 "이승만·델레스" 공동성명에서 "同 條約이 發効할때까지 作戰指揮權을 駐韓 유엔軍 司令部 (UNC)에 이양한다"고 發表

(다) 1953年 10月 1日

韓美相互防衛條約의 正조인파 더불어 "변영태·델레스" 성명에서 "條約 發効後에는 韓國에 歸屬한다"는 절차를 挿入함으로써 作戰指揮權의 반환이 確認됨.

(라) 1954年 11月17日

韓美相互防衛條約의 發効에 앞서 7월에 이승만 大統領의 美國訪問時에 다시 韓美議定書에서 "自由世界의 自由鬪爭이 兩國에

利益이 되는 한 作戰指揮權을 유엔軍 司令官에 이양한다"는 것을
合議하고 帰国後 同年 11 月 17 日 서울에서 서명함.

(甲) 1960 年 9 月 29 日

民主党 內閣에 의해 作戰指揮權 이양의 再確認

(바) 1961 年 5 月 19 日

5.16 軍事革命 政府에 의해 再確認

(사) 1961 年 5 月 26 日

5.16 軍事革命 당시 韓國軍이 暫時 유엔軍司令官의 作戰관
할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共同聲明으로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
이 유엔軍 司令官에 있다는 것을 再確認하였음.

(아) 1961 年 9 月 20 日

韓國軍이 유엔軍 管轄권에서 暫定的으로 벗어날 경우에 선
행하여야 할 "사전협의 條件"을 명시하였다. 이는 韓美相互防衛
條約 第2 條에 根拠하여 (韓國軍의 선공이 아닌 경우) 北韓의 南侵
에 대한 "協議" 條項을 再確認한 것이다. 同協定에 의하면 韓國
軍은 수재, 화재 등 國家 非常事態 發生時에는 暫定的으로 유엔軍司令
官의 作戰指揮 範圍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때 韓國은 次官級
각료가 유엔軍 參謀長에게 전화통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確証하게
된다. 其他의 이탈시에는 유엔軍 司令官의 서면승인이 필요하다.

非常事態時 韓國政府의 차관급각료가 유엔軍司令部 參謀長에게 非
常事態의 성격, 投入할 특정부대, 부대 사용, 사용기간 등을 전화로 통
고하고, 이어서 유엔軍司令官에게 정상상태하의 情報(정상상태하의

要請의 目的, 使用될 특정부대, 兵力, 期間, 作戰態勢 및 訓練에의 影響, 연장의 必要性 및 그 理由등) 를 包含하여 서면 申請해야 한다.

(자) 1978年 11月 7日

韓美 聯合軍司令部 (Combined Forces Command) 의 신설과 함께 1954年 11月 17日의 韓美 의정서 합의사항을 再確認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의 유엔軍司令部 관할)

(2) 유엔軍의 作戰指揮權은 作戰遂行上의 責任만을 의미하며, 군수 행정상의 責任은 韓國에게 있으며 유엔軍司令官의 權限은 共產侵略으로부터 大韓民國을 방위하는데만 부여된 것이다.

(3) 韓國軍 作戰指揮權이 명분적으로는 유엔軍 司令官에게 이양되어 있지만 유엔軍 司令官이 駐韓美軍司令官, 美8軍司令官, 韓美聯合軍司令部를 兼任하고 있기 때문에 實際로는 美軍이 관장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같이 美軍이 韓國軍의 作戰指揮權을 관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戰術한 바와 같이 (駐韓美軍의 주요기능) 한반도 安定維持를 위해서이다. 즉 美軍이 作戰權을 갖고 있지못하면 韓國軍의 단독보복으로 인하여 (이승만 大統領은 대미위협을 위한 외교전술로서 北侵을 공공연히 호언하여 왔고 美國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것도 사실이다) 美軍이 유압될 수 있게 되고 또 이때 韓美間의 협의시간과 절차를 유지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戰爭擴大를 防止하기 위해서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시간을 獲得하여 韓國軍의 단독軍事作戰을 不能케 하기 위한 必要에

서 美軍은 繼續해서 韓國軍 作戰指揮權을 保有하고자 하고 있다.

마. 韓國軍 및 駐韓美軍의 作戰指揮 体制

(1) 駐韓美軍의 指揮体制

○ 駐韓 美地上軍 司令官 (8 軍司令官) 은 太平洋地区 美軍司令官의 企劃, 調整參謀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엔軍司令官 및 駐韓美軍司令官으로서는 駐韓美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이 없다.

駐韓美地上軍 (8 軍司令官) 에 대한 作戰指揮權은 太平洋地区 美陸軍司令官의 指揮에 따라 집행기능으로서 美 8 軍司令官이 수행하고 있다.

즉 駐韓美地上軍의 指揮統制는 美国大統領→美合參議長→太平洋地区司令官→駐韓美 8 軍司令官의 命令계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 한편 유엔軍司令官은 1950.7.7 日의 유엔保障理事會의 권고설의에 따라 유엔을 위한 집행대행기관인 美国의 合同參謀本部議長의 許可없이 軍事行動을 처리할 수 없다. 단 休戰協定 위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軍事行動을 취할 수 있다.

○ 韓國近海의 美海軍活動은 駐韓美軍司令官의 統制를 받지않고 해당 海軍司令官의 作戰指揮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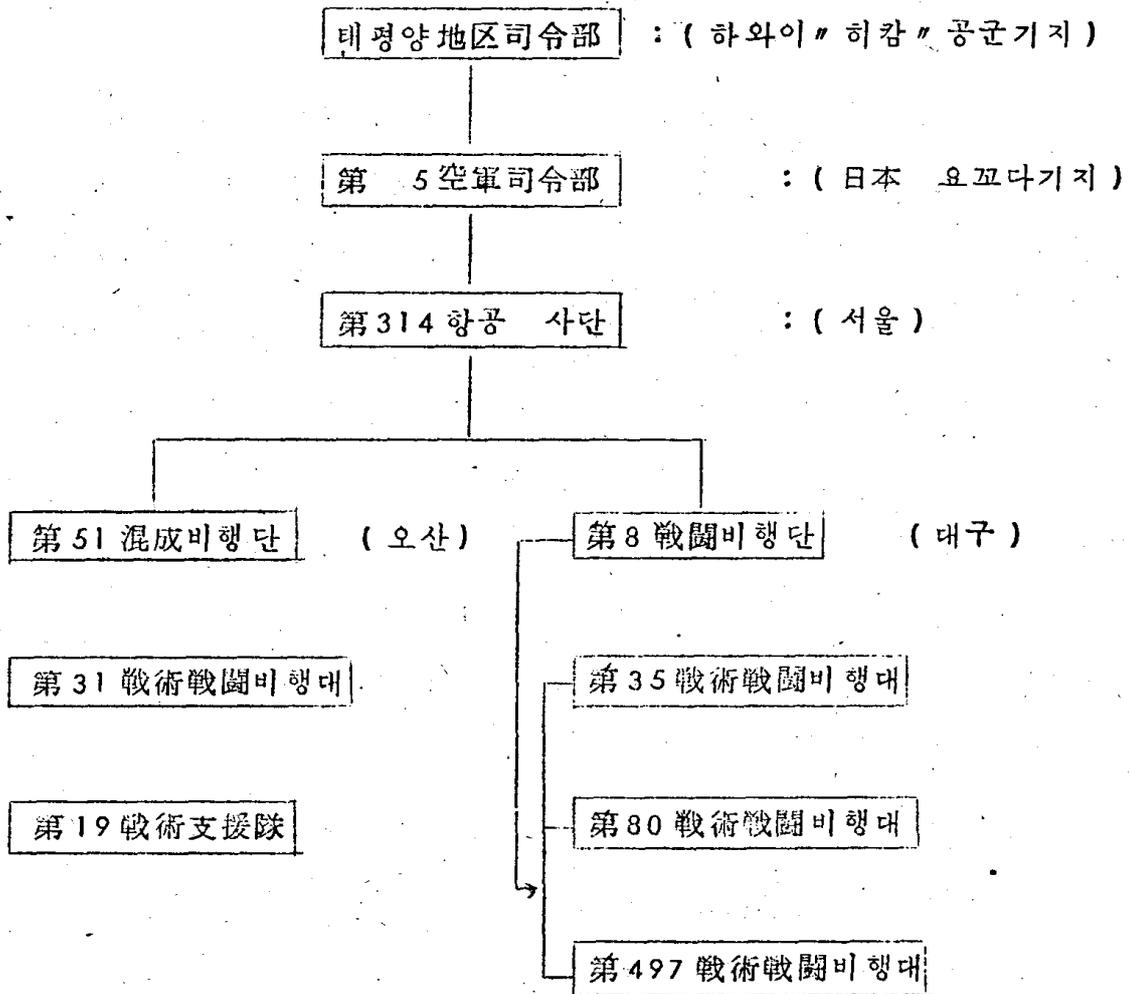
한편 太平洋艦隊司令部 이하의 駐日海軍司令官은 韓國을 包含한 責任地域을 관장하고 있다.

○ 駐韓 防共部隊 및 그 施設運營등은 駐韓美空軍 314 航空司令官의 作戰指揮下에 있으며 적대행위의 선포 및 교전명령 권한을 갖고

있다.

駐韓 美空軍의 指揮體系를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駐韓美空軍 地位體系



(出處 : 中央情報部, 國外日日情報資料, 1978.4.30, p9)

※ 第 497 飛行隊는 韓美聯合司令部設置와 함께 78.11 月에 追加 配置되었다.

(2) 韓美 聯合作戰指揮體制

1978年11月7日에 韓美聯合軍 司令部(Combined Forces Command)가 신설되었다. 이는 "78年7月26日" 美國 산디아고에서 열린 第11차 韓美安保協議會에서 合議되었다.

韓美聯合司令部設置에 따른 指揮體制, 聯合司令의 編制와 任務를 살펴보면 韓美軍事協力關係의 具體的 內容과 作戰權의 實際運營實態가 明確히 드러난다.

(가) 韓美軍事委員會

○ 本會議은 韓, 美兩國의 合參議長, 美太平洋司令官, 韓國측 추가대표 1명 및 연합군 司令官으로 構成되는 만장일치제의 韓, 美聯合司令部 상부기구이다. 통상 매년 연례 安保協議會議 開催時 本會議을 開催하며 本會議가 開催되지 않는 기간에는, 軍事委員會의 기능과 責任을 韓國合參議長과 美國合參議長을 대리하는 駐韓美軍 先任 장교(駐韓美軍司令官)로 構成되는 常設會議에 위임한다.

○ 第1차 軍事委員會 本會議은 "78年7月29日 第11차 연례安保會議에 이어 開催, 연합사의 任務와 그 수행에 必要한 作戰概念을 부여하는 最初의 戰略指示를 하달했었다.

(나) 연합군 司令部

○ 聯合軍司令官은 軍事委員會를 통해 兩國의 國家統帥 및 軍事指揮機構로부터 戰略指針이나 지시를 받는다.

○ 司令官은 美軍 4 星將軍이 임명된다.

○ 司令官은 地上, 海上, 空軍등 3 個 構成軍 司令官을 통해

휘하부대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행사한다.

○ 司令本部에는 평시 聯合司要員의 약 반수가 근무하며 나머지 요원은 서울 근처의 安全한 시설에서 작전업무를 수행한다.

(다) 聯合參謀

○ 聯合司 參謀部組織의 基本概念은 責任의 均等한 배분이다.
○ 參謀長은 美 3 星將軍, 參謀部長은 韓國軍 2 星將軍이 보직되며, 7 個參謀部中 情報參謀는 韓國軍 소장, 인사, 통신, 공병參謀는 韓國軍 준장이 그리고 作戰參謀는 美軍소장, 군수기획參謀는 美軍준장이 각각 임명된다.

(라) 構成軍 司令部

○ 韓國軍과 防空司令部的 일부 美空軍兵力이 構成軍에 包含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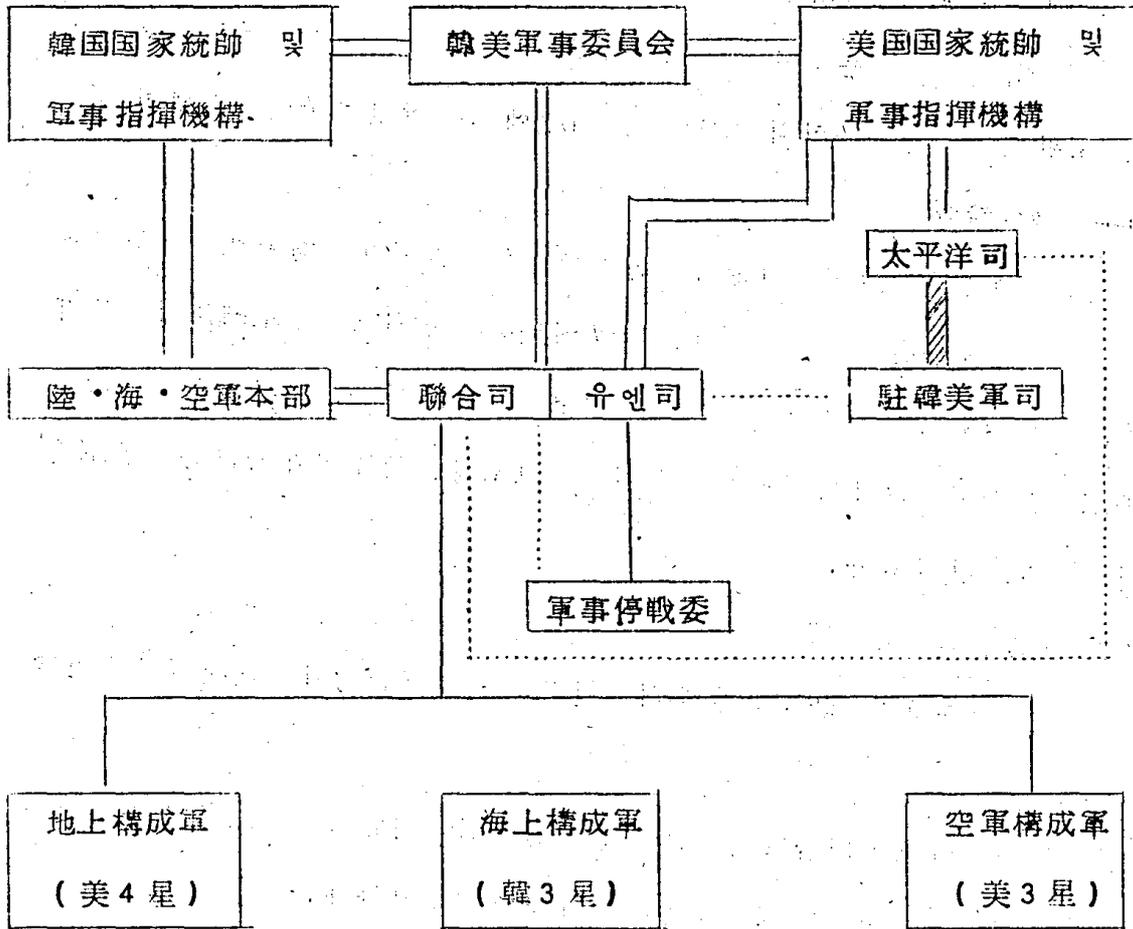
○ 聯合軍 司令官은 地上軍 構成軍 司令官을 兼任하며 一部 聯合參謀들도 地上構成軍 參謀의 기능을 수행한다.

○ 海上構成軍 司令官은 韓國軍 中장, 공군구성군 司令官은 聯合司 參謀長(美軍)이 兼職한다.

○ 各 構成軍 副司令官은 相對國 將星이 任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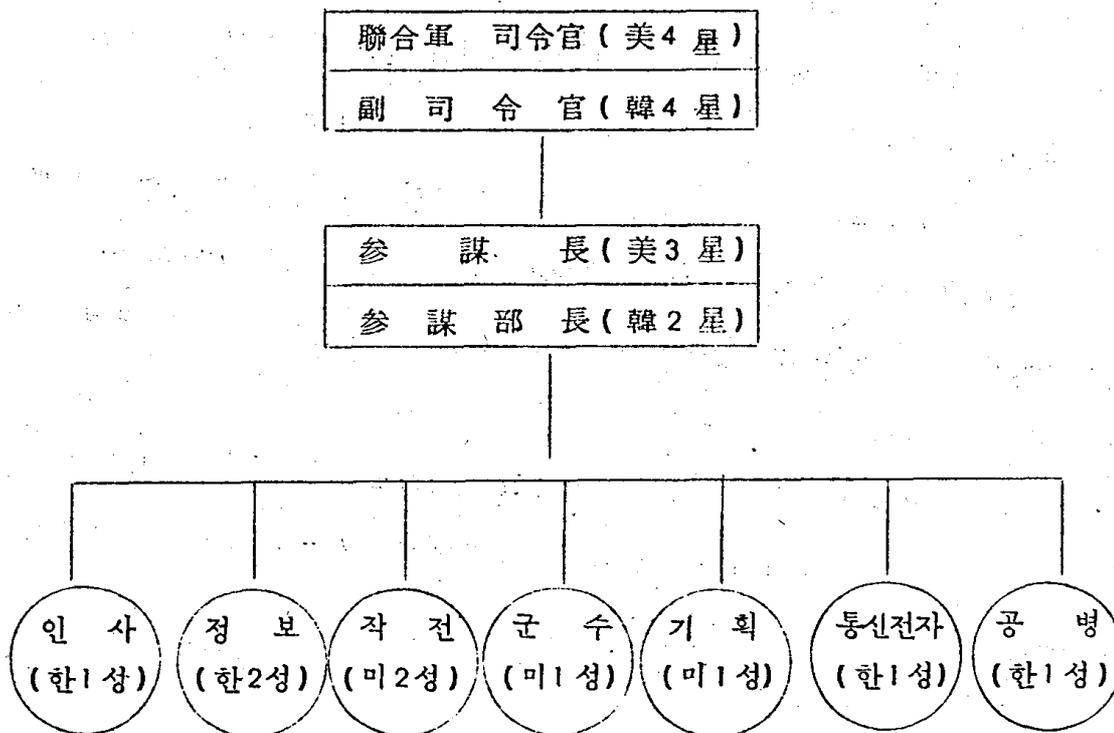
以上の 聯合司 指揮體制를 차트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聯合司 指揮體制



- 凡例：
- ===== 戰略指示 (出處：京鄉新聞，韓國日報，
 - 作戰統制
 - /////// 作戰指揮
 - 協助 及 支援
- 1978.11.8)

聯合司 參謀組織



바. 韓國軍 現代化 計劃과 美國의 對韓 軍事援助

(1) 韓國軍 現代化計劃 推進實態

○ 韓國軍 現代化計劃은 駐韓美地上軍 撤収를 補填하기 爲해 美國과 韓國의 共同發議로서 當初에는 15億弗의 美國의 軍事援助로써 5個年計劃으로 達成하고자 하였다.

○ 同 計劃은 大포와 호크 지대공미사일과 같은 地上 및 대공방어수준 改善을 包含하고 있었다.

○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기타 제약요인들에 의해 計劃은 1977年末까지 計劃達成이 지연되지 않을 수 없었다.

○ 1975年 4月 30日 越南에서 美軍이 물러서자 이에 刺戟을 받은 韓國政府는 스스로 "軍 改善計劃" (Force Improvement Program) 을 세우고 방위세라는 새로운 조세원천을 마련하여 의욕적인 실천을 행해 왔다.

○ 이로 인하여 한국의 國防費 支出은 急激히 增加하여 國防費의 對 國民총생산액의 比率이 5%에서 7 - 7.5%로 오르게 되었다.

'75 - '79 年 韓國의 軍事費支出額

年 度	1975年	1976年	1977年	1978年	1979年
國防費	92	153	155	172	189

○ 單位： $\times 10^7$ \$ (1975年 不變 價格)

○ 出處：統一戰略開發 人間模擬實驗 狀況資料 (SIMOKU - 78 - 11) 國土統一院, p 35 (非공개용 실험자료)

○ FIP가 計劃하고 있는 內容은 最新 航空機 (F-4E, F16 또는 F18) 의 增加, 방공력강화 (발칸포, 地對地

미사일등), 최신형 탱크확보 또는 개선(M 60 탱크), 대탱크용 토우미사일 생산, 여러가지의 대포(예: 자주포, 105미리, 155미리 곡사포)와 M-16소총 생산, 戰爭대비용 병참물자와 비축탄약의 확보등이 그 대강이다.

○ 동 計劃은 1980년에는 南北韓의 軍事力이 거의 평형상태에 도달하고 美軍의 병참지원만 있으면 北韓의 武力南侵을 退시킬 수 있는 軍事力을 갖게되어 있다.

○ 더군다나 동 計劃은 소요자금의 50%이상을 美國의 對外武器販売 援助計劃의 신용공여(FMS의 Credit 援助)없이 外國 차관으로 조달하고자 한다.

○ 그러나 동 計劃이 1980년의 目標시한내 완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첫째 國防費의 增加가 經濟成長 둔화를 초래할 可能性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國防費가 大体로 非生産的 경비라는 점에서 經濟의 확대 재투자가 시급한 現 韓國經濟構造로 박서는 자칫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야기시킬 있다는 점이다.

둘째 FIP는 北韓에게 위구심을 주게되어 北韓의 軍事力 강화노력을 촉발시킬 可能性이 크다는 점에서 美國의 견제가 역시 따르게 될 것이다.

이점은 최근 美國이 對韓 軍事販売를 둘러싸고 北韓과의 軍事力 均衡을 고려하여 최신 항공기의 판매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그 좋은 증거로 볼 수 있다.

실제로 美国議會 豫算局이 豫算審議用으로 提出된 보고서에서는 FIP計劃達成을 懷疑的으로 보고있다.

(CBO, Planning U.S General Purpose Forces: Forces Related to Asia, June, 1977. p 50 參考)

(2) 美国의 대한 軍事援助實態

(가) 美国의 대한군사원조를 결정짓는 主要變數中的 하나는 南北韓의 軍事力 均衡維持 여부에 달려 있다.

駐韓美地上軍이 繼續 駐屯하고 있을때 美国이 생각하고 있는 南北韓 軍事力均衡은 北韓의 軍事力=韓國의 軍事力+駐韓美軍이라는 등식이었으나 駐韓美地上軍의 完全 撤収後의 南北韓 軍事力 均衡등식은 北韓의 軍事力=韓國의 軍事力+美国의 대한 병참, 보급병력+極東 美海·空軍力이 된다.

따라서 美国은 韓國의 國軍向上 計劃이 成果的으로 達成되어 南北軍事力에 不均衡이 發生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따라 대한 軍事援助도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나) 美国의 대한 군사원조의 형태

① 軍事援助計劃 (MAP: Military Aid plan) 에 의한 무상공여 방식

○ 이는 우호국에 대해서 대외원조법에 규정된 목적, 기간 및 조건에 따라 軍用裝備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이다.

○ 美国은 1974 年에 91,074,000 달러, 1975 年에

137,499,000 달러, 1977 年에 830 만달러로서 1978 年

부터는 사실상 없게 되었다.

(2) 잉여병기 (EDA) 양도 방식

○ 대외원조법 (FAA: Foreign Assistance Act: 1961)에 기초하여 美軍이 이미 必要치 않게된 軍用物資를 제공할 수 있을 때에는 신품을 구입하지 않고 國防省의 관리하에 이 물자를 우선적으로 공여하는 것으로 MAP와 같은 概念의 무상원조의 형태이다

○ 韓國은 1974에 36,202,000 달러, 1975년에 17,058,000 달러를 원조받았으며

○ 駐韓美地上軍 撤収의 보완책으로 주한 美第2사단의 장비중 8億弗상당의 장비가 금후 撤軍計劃에 따라 韓國軍에 잉여될 것이다.

(本 裝備移讓法案은 78.7.26 상원에서 8.3 하원에서 통과되었음)

(3) 유상군사원조 방식 (FMS: Foreign Military Sales)

○ 美國國防省이 우호국에 대해서 현금 및 차관형식에 의해서 소요물자 및 서비스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 매각은 對外 軍事販賣法 (FMSA: Foreign Military Sales Act, 1968)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國防省이 直接 차관을 공여하기도 하고 私的인 차관에 대해 보증하기도 한다.

○ 韓國은 美國의 FMS 공여국의 대상국으로서 한국군 現代化計劃때문에 現金 및 신용 공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FMS 사용에는 ① 美軍의 보급체계 절차에 따라 美國政府의 利益을 損傷하지 않도록 美軍이 정한 조건을 받아 들여야 하고

② 軍用裝備, 資材役務로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韓國은 1974 年에 차관 공여 56,683,000 달러, 現金販売 13,155,000 달러를 1975 年에 차관공여 59,000,000 달러, 現金販売 57,430,000 달러 1977 年에 차관공여 2 億7 千万弗, 1979 年에 2 億7 千 500 万弗을 援助받게 되었음.

美國의 對韓 軍事援助 狀況

(單位 : 1000 弗)

區分		年度			
		1974 年	1975 年	1977 年	1979 年
무 상 원 조	MAP 공여	91,074 (46%)	137,499 (51%)	8,300	0
	잉어무기양도	36,202 (18%)	17,058 (6%)	미 상	8 億弗 (79-81)
	소 계	127,276 (64%)	154,557 (57%)		미 상
유 상 원 조	FMS 신용	56,683 (29%)	59,000 (22%)	270,000	275,000
	FMS 현금	13,155 (7%)	57,430 (21%)		
	소 계	69,838 (36%)	116,480 (43%)		
합	計	197,114	270,987		

出處：日本防衛庁， 1980年代의 美，日安保와 非常時의 對美기대도
分析，韓國國際情報資料 특집 (번역) 1977.11, pp74 - 75

- 美國의 對外軍事援助는 MAP에 의한 무상공여에서 FMS에 의
한 유상원조로 옮겨져 가고있다. 이에 따라 美國의 對韓
軍援은 撤軍 보완책의 一環으로 제공되는 美第2사단의 장비
이양을 제외하고는 무상援助가 78年 부터 중단되었다.

3. 1980 年代韓美相互防衛協力關係 展望

가. 몇 가지 假說

(1) 美國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위협의 인식은 과거 10年동안에 현저히 變化하였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中共과는 戰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는 認識이다. ('79年 1月1日부터 美, 中共 兩國은 워싱턴과 北京에 있는 각기의 連絡事務所를 大使館으로 승격시켜 公式적인 國交正常化 關係를 設定하는 한편 이와 同時에 美國·대만과의 공식적인 國交關係는 소멸된다고 兩國政府는 1978年 12月 16日 상방의 수도에서 同時에 공동성명을 發表함으로써 이 같은 認識을 더욱 確實히 하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認識은 적어도 今後 10年동안은 繼續될 것이다. 中·소對立關係가 기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10年이상 장기간에 걸쳐 美·中共은 소련의 위협에 對해서 공동의 자세를 취할 가능성조차 있다.

(2) 美國은 東北亞에서 소련軍事力の 급속한 增強으로 이에 對應하는 東北亞 軍事力增強이 시급히 要求되나 과도한 軍事費負擔에 따른 國內輿論의 불만과 海外軍事 불개입原則등 여러가지 要因에 따라 長期的으로는 아시아 大陸 주변에 대한 地上軍 介入을 撤收시키고 日本,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를 이은 일련의 도서의 連鎖를 고도의 기동력을 가진 海, 空軍力으로 防衛한다고 하는 " 도서방위전략" (Island Chain Strategy) 을 취하든지 또는

이와 대등소이하지만 美·日의 海軍力이 中心이 되어 소聯의 太平洋 海洋進出을 감시, 추적하기 위한 海洋 同盟体制 (Ocean alliance System) 를 형성함으로써 防衛地域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 80年代 초반까지는) 美國은 東北亞에서 一定水準의 기동타격부대를 유지하여 소聯의 소규모 軍事 膨脹모험에 대처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兵力水準은 "1부 (또는 1-plus) 戰爭能力" 을 標準으로 삼을 것이다.

(3) 美, 中共關係는 소聯의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를 위한 協力할 必要性의 인식에 대해서는 美, 中共간에 갭이 存在할 것이다.

美國은 소聯과의 緊張緩和, 군비제한교섭 (SALT) 의 繼續에 대한 배려 때문에 소聯에 대한 도발적태도를 자제할 것이다.

中共은 美國과 소聯의 軍事均衡의 추이를 신중히 주목하면서 美國이 소聯과 世界的인 勢力均衡에 있어서 優위를 持續하고자 하는 자세를 繼續하는한 韓·美·中共 接近, 美·中共의 한정적 協力の 자세를 持續할 것이다. 中共이 소聯의 勢力破壞因子로서 美國의 国力에 대한 信賴를 잃었을때, 中·소의 瓦解 可能性은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금후 10年間に 걸쳐 그와 같은 事態가 일어날 可能性은 매우 적다.

美國이 中共에 방위용에 한정된 병기를 供給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美·中共의 軍事的 協力体制를 進展시킬 可能性은 極히 적고 그것이 美·中共兩國에 있어서 軍事的, 政治的 利益을 가져올 可能性도 적다.

(4) 中共의 對外政策 基本立場은 3개의 革命論으로 집약된다.

中共은 現在의 世界를 美國과 소聯이라고 하는 2개의 패권主義的 초강대국으로 된 제1 세계, 제1 세계와의 사이에 모순을 가진 유럽제국과 日本등 先進工業國으로 된 제2 세계, 開發途上國으로 된 제3 세계의 3개로 区分하고, 제3 세계를 단결시켜서 主眼군으로 하고 제2 세계를 우방으로서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으로 이용하며 제1 세계, 특히 美國보다도 공격적이고 위험한 소련의 패권主義에 反對하는 國際的 統一戰線을 組織한다고 하는 대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소聯의 패권主義에 反對하는 鬪爭을 進行시키는 일에 美·소간의 모순을 철저히 이용하고 日本을 包含한 西方側 先進工業國과의 우호關係를 反소鬪爭에 有用하게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와 같은 獨트린은 아마 金후 상당히 長期間에 걸쳐 繼續될 것이다.

勿論 對外關係에 있어서 現實主義的 온건노선 展開의 일환으로서 소聯과의 國家關係를 部分的으로 改善하는 方向이 제기될 可能性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長期間에 걸쳐 소聯과의 對立路線이 繼續될 것이다.

(5) 美國은 駐韓美地上軍 撤収에 따른 混亂을 最少限으로 한정시키기 위하여 퇴조시기 (timing) 와 方法에 關係는 韓, 日兩國과 緊密히 協議하게 될 것이고 韓國防衛力의 近代化努力에 積極적으로 援助할 것이기 때문에 駐韓 美地上軍 撤収에 따라 南北韓간의 힘의 均衡이 현저히 不安定하게 된다는 하는 사태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美國은 美地上軍撤収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安全保障을 南北韓의 軍事的 均衡에 만 依存하지 않고 南北韓간의 交渉에 의한 해결로 일보전진 시키기 위한 外交的 努力을 추진할 것이다. 어떠한 方式으로 그것이 추진될지 또한 北韓과 北韓의 政策을 지지하는 中共, 소聯이 이에 어떤 反應을 나타낼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다.

(6) 소聯은 北韓의 친중화를 막기 위해 상당량의 軍援과 경원을 北韓에게 줄 것이며 소聯의 양해없이 一方的으로 개전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韓國軍 現代化에 대응할 정도의 北韓軍 現代化를 도울것이나 核武器는 繼續 供給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美國의 한반도 平和定着을 위한 外交的 努力에 쉽게 동 의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교차승인안에 대한 거부 예상)

(7) 中共은 韓半島의 安定과 소聯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北 韓과의 協助를 強化해 나갈것이며, 北韓의 統一政策을 繼續 強力히 지지할 것이다. 北韓의 武力統一에 대해서는 反對할 것이고 北韓 에서 " 韓國内部革命 " 을 통한 비정규전적 統一努力을 強力히 권고 할 것이다.

나. 韓, 美協力關係 (展 望)

韓半島에서 돌발적인 非常事態가 발생했을때 (Contingency) 美國의 対応軍事措処 또는 韓·美軍事協力체에 대한 檢討는 다음 장에서 檢討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앞서 檢討한 몇가지 가설을 토대로 하여 現在의 韓美安保實態를 綜合하여 展望하고자 한다.

今後 1980年代의 韓美協力關係는 駐韓美地上軍 撤収에 따라 야기될지도 모를 한반도 安定破壞防止에 美國의 對韓國政策이 焦點을 모으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안의 韓美安保体制상의 여러가지 問題가 解決되어 나가게 될 것이다.

以下 현안문제별로 전망하여 본다.

(1) 韓·美防衛條約

이미 序論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同條約은 內容上에서 完全하고 充分하게 韓國의 國防을 保障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同條約은 韓國이 맺고있는 유일한 軍事條約으로 우리의 安保生命을 유지케 해 주는 명분이다.

비록 同條約이 美國的인 軍事戰略方向에 따라 그 性格의 強弱이 決定되고 또한 美國的 憲法節次에 따라 遂行될 것이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韓·美간의 安保利益의 영역이 今後 10年間에는 繼續 存在할 것이 分明하다면 (若干의 소폭변화는 可能) 굳이 同條約의 조문변경을 통한 韓·美軍事關係 緊密化의 방향모색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美國側으로서도 美國內 輿論과 政府의 對外軍事 불개입政策
으로 인하여 同 條約의 改正을 考慮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同 條約의 改正 強化보다는 그냥 維持하면
서 實質的인 협력유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作戰 指揮權

韓美聯合司 創設과 더불어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이 美
軍의 絶對的 權限에서 相對的 權限으로 어느 정도 變化한 것 같
기도 하고, 또한 駐韓美軍撤収가 美軍에게 作戰指揮權을 위임할 명
분을 상실하는 이유로 作戰指揮權의 이양이 금후로는 불가피한 현
상으로 나타날 것은 分明하다.

그러나 美國은 1981年末까지 駐韓美地上軍이 撤収하더라도
병참 및 海, 空軍支援兵力은 여전히 상당수 잔류할 것이고, 韓國의
對北韓 軍事도발 可能性의 미연방지와 美태평양 軍事作戰의 能率化
라는 軍事的 目的의 必要에 의해 적어도 80年代 초반까지는 作戰
權을 繼續 保有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韓國은 80年代에서도 여전히 絶對的 水準의 自主國防
력이 없는 狀況下에서 作戰權回復은 韓美軍事協助關係를 해칠 우려
가 있고 이는 중·소의 막강한 勢力을 업은 北韓의 위협 앞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비록 作戰權회복이
國家的 명분과 主權의 必要事項이라고 할지라도 韓美 軍事協助關係
를 繼續 維持하는 範圍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80年代 초반까지도 韓國軍 作戰權은 韓國의 部分的인 參與가 認定되면서 美國이 繼續 장악하고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現在 韓美聯合司令部 作戰, 軍需, 企劃의 參謀는 美軍이 장악하고 있다)

(3) 美國의 對韓 軍事支援

○ 80年代 초반경 美地上軍은 大體로 撤收하고 司令部 要員, 병참, 輸送, 通信, 情報등의 必要要員과 空軍兵力이 繼續 잔류할 것이나, 중반경부터는 美國은 도서방위 太平洋戰略에 立脚하여 完全撤收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 美國의 對韓軍事援助는 FMS 신용공여와 現金販賣가 繼續될 것이나 이는 美國의 대한장비지원 방침의 範圍內에서 遂行됨에 따라 신용공여는 점차 줄어들고 現金販賣가 增加될 것이다. (日本의 對美購買는 현금공여가 大部分이다).

全體援助 규모는 韓國이 고도의 정밀 최신무기류를 必要로 함에 따라 增加될 것으로 판단된다. (年間 FMS 現金販賣가 3 - 4 億弗)

○ 韓國軍 現代化計劃과 撤軍補完策으로 駐韓美 제 2 사단의 裝備가 撤軍計劃에 따라 韓國側에 양도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무상원조는 기대하기 어렵다.

○ 地上軍이 撤收하더라도 完全撤軍이 되기전에는 (병참, 공군력, , 등) 戰術核武器는 撤收되지 않을 것이다.

4. 非常事態 發生時 對美 기대도 (測定)

가. 전체 사항

○ 韓半島에서 비록 우발적이긴 하지만北韓의 軍事的 南侵을 가상 했을때 이에 대한 美國의 軍事的 対応措置를 測定하고자 한다.

○ 단,北韓의 南侵은 中·소의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전면 武力南侵으로 1950年 6.25 動亂때와 같은 양태의 戰爭을 의미한다.

나. 測定 基準

(1) 測定要因

美國이 과거에 友好國의 非常事態 發生時 취한 軍事的 対応 經驗을 分析하여 본 결과 大体로 다음과 같은 6가지 要因으로 摘要되었다.

요인 1 : 그 時点의 國際輿論

요인 2 : 그 時点의 美國 國內輿論

요인 3 : 그 地域의 戰略的 價值

요인 4 : 그 時点, 그 地域에 대한 美軍의 戰略的 配置

요인 5 : 전면 戰爭擴大 可能性

요인 6 : 軍事に 우선하는 政治的인 배려

(2) 要人別 영향도

이들 要인들이 美國의 軍事的 対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그 영향도에 의해 분류하면 다음의 3 단계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가) 조정 패턴

- 事態擴大를 抑制하고 可能な 한 조기수습을 目標
- 이 경우 軍事的 対応은 名目的인 것이 되고 外交通路를 利用한 政治的 対応이 추가된다.
- 따라서 紛争關係國의 軍事力행사 견제 및 軍事에 우선을 하는 政治的 배려 등에 의하여 軍事的 対応을 相互 抑制 하려고 하는 사례가 많다.
- 사 례
 - 앙골라 내전 (1975. 5 - 1976. 2)
 - 제 2 차 인도. 파키스탄戰爭 (1971. 12. 3-12. 17)
 - 스웨즈 動亂 (1956. 10. 29-12. 22)
 - 베트남 戰爭 (1973. 3. 29-1975. 4. 30)

(나) 支援 패턴

- 事態擴大를 繼續 抑制하면서 現實的으로는 우호국과 그 對立國과의 軍事力の 均衡을 維持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이 경우 美國은 軍事力을 直接 介入시키지 않고 그 의도를 적당한 수단으로 상대측에 보내는 등의 外交的 対応과 이에 병행해서 무력에 대한 시위, 긴급 무기원조, 必要로 한다면 海, 空

軍에 의한 엄호, 輸送등의 支援을 中心으로 한 行동을 취한다.

○ 이 패턴은 해당지역의 戰略的 價值, 相對側의 軍事力 행사 정도, 國際輿論, 美國 國內輿論등에 左右되지만 一般的으로는 政治的 배려와 軍事的 배려가 均衡된 경우이다.

○ 사 례

- 대만해협 위기시 (대진도 철수시 1955.1.18-2.11)

- 제4차 中東戰爭 (1973.10.6-10.24)

(다) 무력행사 패턴

○ 전면전쟁 擴大抑制와 우호국을 存立의 위기로부터 구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事態의 긴박도 및 그후의 狀況推移에 關聯하여 外交的 措置와 軍事的 対応을 함께 단계적으로 進行, 軍事行動으로서는 間接的인 対応에서 直接的인 무력행사에 이르는 넓은 範圍에 걸친 패턴이다.

○ 이 패턴에는 國際輿論, 美國 國內輿論, 紛爭相對國의 軍事力 行사의 규모와 範圍, 해당시점에 있어서의 美軍의 戰略的 配置 해당지역의 戰略的 가치 및 全面戰爭으로 擴大할 可能性이 重要한 判斷資料가 된다.

○ 사 례

- 韓國戰爭 (1950.6.25-1953.7.27)

- 베트남 戰爭 (1961年무기원조 개시 - 1973.3.29 撤軍開始)

다. 대미 기대도 측정

6.25動亂의 선례와 80年代 非常事態를 比較檢討하는 方向에서 대미 기대도를 추출하고자 한다.

(1) 6.25 事變

(가) 측정요인 檢討

① 國際 輿論

北傀侵略을 非難하는 유엔을 中心으로 한 國際輿論의 지지가 있었다.

② 國內 輿論

第2次大戦後 共產主義 擴大추세에 대한 美國内の 위기감은 美國內 輿論 統一을 容易하게 했다.

③ 전면戰爭으로의 擴大 可能性

소聯의 核保有는 초기단계에 있었고, 美國은 核優位 狀態에 있었기 때문에 第3次大戦의 유발을 회피하기 위해 최대의 고려를 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쉽게 結단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

④ 戰略的 價値

韓國을 防衛하고 保持하는 것은 大陸에 최후의 지역을 確保하는 것이고 戰略上 價値는 絶對的이었다.

⑤ 戰略的 配置

日本에 4 個師團의 陸上兵力을 保持하고 있어 전면적 무력개입이 용이한 戰略的 配置가 되어 있었다.

③ 政治的 배려
中共의 対応에 대하여 당초 中共이 불개입할 것이라는 상
황 판단을 했었다.

(나) 軍事的 対応
美國은 유엔軍을 골간으로 하여 전면적인 무력개입을 단행
한 전형적인 무력행사 対応패턴을 취하였다.

(2) 80年代의 非常事態 發生時

(가) 측정요인 檢討

① 國際輿論

○ 南北韓 戰爭을 民族内部 革命으로 간주하는 第3-世界國家들과 유엔의 軍事的 기능마비와 政治的 信賴感 상실등은 韓國側에 유리한 國際輿論을 獲得하기가 거의 不可能할 것이다.

② 國內輿論

○ 美國内の 經濟安定과 복지증진이 美國民에게 가장 급박한 당면문제로 등장됨에 따라 美國의 對外軍事개입에 대하여 美國民은 反對할 것이다.

○ 美國民은 世界무대에서 美國이 軍事的 道德主義 보다는 現實的 實利主義를 택할 것을 더욱 바랄 것이다.

③ 全面戰爭으로의 擴大 可能性

○ 美國은 中·소가 이미 核保有強大國으로 되어 있고 韓半島와 軍事的, 經濟的으로 密接히 연결되어 있는 日本이 強力히 核保有 潛在國으로 되어있는 이상 南北韓간의 紛爭이 世界戰爭으로

擴大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南北韓간에도 통상병력면에서 상당한 軍事力均衡이 維持되어 있기(80年代 後半에는 韓國이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비록 北韓의 南侵도 南北韓 스스로가 단기간에 종결, 休戰을 모색할 것이다.

④ 戰略的 價值

○ 韓國은 이미 美國의 太平洋 防禦戰略上 絶對的인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80年代 후반경 美國이 島嶼 防衛戰略(Island Chain Strategy)을 취하게 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⑤ 戰略的 배비

○ 이미 韓國内에서는 地上軍은 完全 撤収된채 일부통신·정보 병참지원병력이 평시업무 처리상 잔류하고 있는 이상 南北韓 전면전 수행에 개입될 軍事力이 못된다.

단, 駐韓美空軍 戰鬪戰術 비행대대(2개 상주대대 및 1개 기동 타격대대등)는 韓國軍을 支援할 태세가 되어있다.

○ 駐日 美軍兵力도 地上軍은 병참보급, 情報, 通信 및 司令部 요원들이 大部分으로 戰鬪兵力이 없다.

단, 空軍力은 화력과 기동성에서 韓國支援 能力을 充分히 갖춘 상태이다.

○ 海軍力은 北韓 侵攻軍저지에 效果的으로 기동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美7 함대가 配置되어 있으며, 美7 함대는 소聯의 極東海軍 增強에 따라 現在보다 더욱 強化될 것이다.

⑥ 政治的 배력

○ 美·日·中은 소聯을 견제하기 위한 3 : 1 防衛體制가 굳어가고 있는 한편 美·소 雙方은 戰略武器 제한 協定の 성과적 수행을 목계적 合議에서 상대방을 軍事적으로 刺戟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 美, 中, 소는 自國에게 決定的으로 위기를 주지않는 한 外交적으로 紛爭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나) 軍事的 対応 기대도

上記 6個요인을 檢討해 보면 6.25 事變때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美國의 軍事的 対応은 6.25 事變때와 같은 전면 무력행사 패턴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조정패턴이나 支援패턴의 2가지 유형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韓·美간은 繼續하여 相互防衛條約이 유효하며 安保協助체제가 繼續되고 있는 狀況이므로 조정패턴은 될 수 없다. 조정패턴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체로 정치적 우호국 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中立國에 대한 것이다.

韓·美간이 政治的, 軍事的으로 오랜 傳統的인 우호국인 이상 전면무력행사 対応패턴이 不可能하다면 적어도 支援패턴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支援패턴의 경우라 할지라도 美海·空軍力の 實際 戰鬪參加는 기대될 수 있다.

以上の 分析을 圖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